



소리판으로 풀어보는 '책장수 조신선'의 이야기

'천하의 책 모두 내 책'

▶ 국립민속국악원 토요국악초대석 바덕소리의 '소리Book 사려!' 공연

36개월 이상 유아들도 이해가능한 공연으로 구성 함께 따라부르는 시간 마련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의 토요일 공연은 지난 몇 년간 토요국악무대, 토요창극무대 등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해 왔다.

매주 만나는 상설공연의 이름으로 다시금 자리 잡은 '토요국악초대석'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날 수 있도록 국립민속국악원의 기획·제작 및 초청공연 등 한 해 동안 총 30회의 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 무대를 여는 판소리 <이야기보따리>에서는 판소리공장 바덕소리의 '소리Book 사려!' 공연을 오는 4일 오전 11시·오후

3시 예음헌에서 두 차례 선보인다.

공연은 조선시대 '천하의 책은 모두 내 책이다'라고 호언장담하던 한양제일의 책장수 조신선이 시간을 넘나드는 기이한 신령력을 발휘, 책속에 담긴 이야기를 소리판으로 엮어 보인다는 내용을 그린다.

이날 공연은 36개월 이상 유아들도 국악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했다. 조신선과의 만남으로 판소리의 추임새와 공연 관습시 에티켓 등을 배우는 '조신선의 아리랑', 개미들의 신나는 모험을 창작판소리로 듣는 '검정 개미야,

어디서 왔니?',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가', 창작판소리와 판소리 '토끼와 거북이', 전통 판소리 '박타령', 창작판소리 '내 다리 내보', '진도아리랑'을 듣고 함께 따라 부르는 시간을 마련해 관객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무대에 서는 판소리꾼 '판소리공장 바덕소리'는 2002년 결성된 이래, 전통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창작 판소리·창작민요·창작 소리극 등 시대의 삶을 노래하는 공연을 펼쳐보고 있다. /정해은 기자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이달 '주말의 영화'

운명적인 사랑을 찾아

뱅상 카셀 주연 '라빠르망'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3월 '주말의 영화' 상영작으로 개봉 20주년 기념 리마스터링 재개봉작이자 멜로 영화의 걸작인 질 미루니 감독의 <라빠르망>을 상영한다.

<라빠르망>은 운명적인 사랑을 찾아 헤매는 남자 '막스'와 홀연히 사라져버린 연인 '리자'의 관계를 그린 작품으로 첫사랑의 설렘부터 이별의 아픔, 그리움의 향수까지 사랑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담아낸다.

이는 지금은 헤어졌으나 세계적인 배우 커플로 명성이 자라났던 모니카 벨루치와 뱅상 카셀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던 작품이기도 하다. 중견 배우가 된 두 사람의 뜻깊은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영화의 볼거리 중 하나이다.

제5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며 명작의 반열에 올랐으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아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2004년)라는 제목으로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 됐다. /정해은 기자

전주문화재단, '찾아가는 모금스쿨' 개최

(재)전주문화재단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모금스쿨'을 개최한다.

이 강좌는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의 기부금 모금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비영리조직 재원조성 담당자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9~10일 양일간 전주시민ホール에서 열리는 강좌에서는 황신애(사)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 이선희(주)휴먼트리 대표, 장진민(주)이음스토리 이사, 박재현 MEME 엔터테인먼트 대표, 정현경 비영리컨설팅 펄업 수석컨설턴트가 참여자의 자기인식 및 모금 이해도 제고, 교육을 통한 성과목표 설정, 모금을 위한 법률·세무 준비사항 및 기부자 확보 전략과 사례 이해를 주제로 강연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일 정오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참가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어느덧 찾아온 '봄', 회화·공예로 바라보다

정읍시립미술관 첫 소장품전 '봄을 보다'

정읍시립미술관이 새봄을 맞아 마련한 '봄'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展)가 시작됐다.

시립미술관은 2일 미술관 1층 뮤지엄실에서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시일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에는 김생기 시장과 이흥재 시립미술관 명예관장과 작가, 시민 등이 참석해 전시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번 기획전시 '봄을 보다'전은 오는 26일까지 시립미술관 전시실에서 이어진다.

시립미술관의 첫 소장품전으로, 올해 초까지 시립미술관에서 수집한 작품들 중 '봄'을 주제로 한 회화와 공예, 서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에는 국내·외에서 분야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 48명의 소장품 중 '봄'이 연상되는 평면과 입체작품 62점이 전시된다.



김 시장은 "이번 소장품전을 통해 작가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엿보고, 미술 등 예술 활동이 사람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는지를 음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며 많은 이들의 관람을 당부했다.

한편 시립미술관은 이번 기획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단기 체험프로그램인 '미술관 똑딱 아지트'와 '정규프로그램인' 어린이 뮤지엄클래스'를 운영한다. /정음=김대환 기자

전주시-국립무형유산원

오늘 무형유산 협약 체결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과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3일 오전 9시 10분 전주시청에서 지역 무형유산 협력사업인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전주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사업은 2014년부터 국립무형유산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무형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유도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지역 무형유산의 자생력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다.

무형유산원과 전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지역 무형유산 보호와 체계적인 무형유산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공통된 목표 하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무형유산 보호의 선도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

한 세부사업으로 전주지역의 비지정 무형유산 목록화, 영상 기록화, 공연·시연,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그동안 올해의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된 담진시(2015), 남원시(2016)와 함께 '2017 무형유산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가야금산조 및 병창(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선자장(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과 지방무형문화재 등 30건을 보유하고 있다"며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선정을 계기로 전담 부서(전통문화유산과)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무형유산 보호에 선도모델이 되는 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김민근 기자

부안예술회관 '작은 음악회' 공모 선정

부안예술회관이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음악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부안예술회관이 이번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국비 2,700만 원을 지원받고 오는 3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오케스트라 연주, 합창,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월부터 일반인들이 더욱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였고, 부안군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더 많은 지역민들이 문화로 함께 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부안예술회관은 작은 음악회를 통해 오는 3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1년 간 총 9회의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오케스트라와 샌드아트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콜라보 공연인 '보는 클래식'을 시작으로 20인조 합창단의 '우리의 추억을 부르다', 오케스트라와 댄서들의 만남인 '정글로 간 해적'까지 문화로 풍성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2017년 올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남원에서 만나는

지리산 둘레길

마을과 고개를 넘어
사람과 숲을 이어주는
지리산 800리길, 남원

파란 하늘과 붉은 산과 황금 들녘이
수제화처럼 펼쳐지는 곳
지리산 둘레길엔 가을이 한창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KBS 1박 2일이
함께 했던 남원
멋과 맛이 숨쉬는
가족 여행지입니다.

